

## 특특뉴스

###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된다.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억6,000만원까지 저리의 긴급대출이 제공되고,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보고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 그래픽 경제



### 2분기 경제성장률 0.7%... 소비 늘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민간 소비가 늘어나면서 2분기 한국 경제가 0.7% 성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3% 이상 뒷걸음쳤다.

### 고물가·코로나19·소가족화 영향 전집 등 제수음식 전문점 주문 쇄도 마트·시장, 간편식·완제품 '불터'

고물가와 짧은 연휴·코로나19 재확산이 겹친 유례없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차례상 문화가 도래하고 있다. 1인가구 증가, 모임 자제 등으로 최대한 명절 행사를 간소화 하려는 분위기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수음식 전문점과 대형마트 완제품 매출이 크게 상승하는 등 변화하는 생활상을 반영하면서 예법과 도리를 지키려는 현명한 명절 풍습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1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추석 대목을 앞둔 한 상인들 모습 보였다. 반찬가게, 해산물, 정육점 등 상인들의 호객행위와 흥정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지만 지갑을 열고 장바구니를 채워가는 시민들은 보기 어려웠다.

다만, 그중에서 전집과 같은 제수음식 전문점은 음식냄새를 풍기며 숨 돌릴 틈 없이 분주했다.

한 상인은 과일, 떡, 탕, 전 등이 적힌 주문서를 펴고 음식을 만들면서 문의 고객까지 상대하느라 흐르는 땀을 연신 닦기도 했다.

제수음식점 상인 이모씨(56)는 "4~5년 전부터 명절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바쁘다. 코로



1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한 시민이 명절 차례상에 올릴 견어물을 살펴보고 있다(왼쪽). 1일 오후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모듬전, 송편 등 간편가정식 제수음식을 살펴보고 있다.



나19에도 소량이지만 손님들은 많았다"며 "지금도 주문이 너무 밀려있고 다음 주 들어올 예약까지 준비하려면 잠깐도 쉬 수 없지만 매출은 올라 기분 좋다"고 웃음을 보였다.

또 다른 상인 천 모씨(60)도 "아직 주문이 많지는 않지만 주말에 예약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며 "명절 제수음식을 구매해 사용하는 집이 늘어 불경기에도 매년 매출은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라진 명절 트렌드가 자리를 잡으면서 명절 대목 상점들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고물가와 소가족화, 1인 가구 증가로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 음식 양을 줄이거나 간단하게 준비하는 문화가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특히, 바쁜 일상으로 음식 준비가 어려운 시민들은 전

점에서 구매하는 행동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은 31만 8,045원으로 전년 대비 2만 241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 2,171원, 대형 유통업체는 36만 3,92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6.6% 늘어났다.

제수음식 전문점의 가격은 양과 종류별로 상이했지만 23~50만원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었다. 인건비를 고려한다면 저렴한 가격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유통업체의 간편가정식과 밀키트도 명절 음식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8월 간편가정식 제수음식 중 냉동전 매출은 14.9%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품목으로는 모듬전 81.8%, 오색꼬지전 79.1%, 해물부추전 24.0%로 높게 나타났다. 피코크 냉동전은 지난해 16.4% 신장하며 꾸준하게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유통업계는 간편 제수음식을 출시하는 제조 브랜드와 종류가 확대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맛과 품질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냉동 떡갈비와 모듬전, 송편 등을 구매한 주부 박 모씨(59)는 "명절음식을 준비하려 알아봤는데 시장도 인터넷쇼핑도 가격이 너무 올라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매년 음식이 많이 남기도 했고 자녀들이 이번에는 집에 오지 않기로해 최대한 간편하게 차례를 지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홍승현 기자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 근로소득자 146만명 대상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146만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 신청 대상이라 이번에는 제외된다.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이 맞은 사람은 신청 기간에 홈택스·손택스·ARS 등

으로 신청하면 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년 3월), 2022년 정기 신청기간(내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연수 기자

## 광주은행,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

### 중견·초급행원 20여 명

### 5일부터 원서접수 시작

광주은행이 오는 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정규직 신입행원 공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20여명으로 모집 분야는 중견행원과 초급행원으로 나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채 방식으로 지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중견행원에 대해 지역인재, 일반인재, 디지털·IT, 통계·수학으로 구분해 모집하고, 초급행원은 디지털·IT 분야를 모집한다. 이 중 지역인재 및 디지털·IT 부문은 광주·전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하며, 일반인재 부문은 출신학교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통계·수학 부문은 관련 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와 일반인재를 구분해 채용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